민주, "입장 조속히 정하라" 이준석·윤석열에 공세

"이대표, 아버지 빽으로 인턴"…수술실 CCTV 설치법 등 압박
'내 갈길 간다' 윤에 "귀 막고 입 닫으려면 변호사 개업이나 해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쌍끌이 공세 고삐를 바짝 죄었다. '꼰대 정당' 위기감에 사로잡힌 민주당은 특히 수술실 CCTV 설치법,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을 재차 표명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펼쳤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도 신중론, 차별금지법도 시기상조론…이준석 대표님, 민생을 위한 정치는 언제 시작됩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공감은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은 이 대표님이 당 대표 후보 시절 얘기했던 '비겁하지 말자'는 말과 맞지 않는다"며 "입장을 조속히 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식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이상민 의원 역시 SNS에 "평등법 제정을 서두를 필요 없다는 이준석 대표 역시나 실망이군요"라고 썼다. 그는 "그렇게 본질을 회피하고 눈치 보기에 급급하며 양다리 걸치고 툭 하면 시기상조 운운하는 것은 많이 보아 온 구태"라며 "괜히 이벤트에 의존해 국민을 시선만 끌려고 잔재주 부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시대적 의제에 정직하게 정면으로 마주하기를 권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내세우는 '능력주의'의 실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조국' 성향의 김남국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의 아버지가 유승민 전 의원하고 친구"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아버지 인맥, 빽으로 국회에서 인턴하고 청년 정치에 발을 들였는데 그러한 청년 정치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날 "여야의 협공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 국민이 가리키는 대로 큰 정치를 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청래 의원은 "국민들이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면 성실히 해명해야지 귀 막고 입 닫고 가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에 귀 막고 입 닫으려면 조용히 변호사나 개업이나 하시는 게 맞다"며 "검찰에 잔존 윤석열 라인이 있을 테니 돈벌이는 괜찮을 듯하다"고 비꼬았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의원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다"라며 정치권 전면에 나서지 않고 메시지만 발표하는 윤 전 총장의 '전언정치'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인제 보니 (윤 전 총장은) 검증할 내용도 없고 밝힐 비전도 없이 그저 대통령 되고픈 욕심만 있는 것 같다"며 "자칫 나라도 불행하고 자신도 불행하게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대화하는 여야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오른쪽)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예방,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보수의 새로운 희망" 이준석 "정치 경륜·경험 배울것"

이준석 대표, 송영길 대표 첫 예방

22살 차이 나는 여야 대표가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국민의힘 이준석(36) 대표가 취임 일주일만인 17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58)를 예방한 자리에서는 시종 덕담이 오갔다.

민주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를 맞이한 송 대표는 우선 "(이 대표의 당선은) 단순히 30대 젊은 대표라는 것을 넘어 내용과 스토리가 있다"며 "합리적 보수의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는 느낌을 줬다"고 극찬했다.

송 대표는 이어 "광주에 가서 5·18 정신에 대해 했던 말씀이나 대구에서 본인을 정치에 입문시켜 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을 보며 많은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나경원 전 후보와의 TV토론에서 '억까'(억지로 까기) 하지 말자는 말에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정치를 하면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본 취지를 악의적으로 해석해 억지로 까는 소모적 정치를 이제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들으며 너무 기분이 좋았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아주 환영하실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대표는 이 대표에게 "택시 기사를 해봤다고 해서, 저도 택시 노조 출신이라 공감이 된다"고 말하며 '택시 기사'를 공통 화두로 삼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번에 저희 두 대표가 선출되어 앞으로는 양당 간 교류가 다른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는 국민 기대가 많다"고 화답했다.

이어 "송 대표님은 저보다 연배도 위고 앞으로 배울 점도 많은 정치 선배"라며 "제가 기회가 된다면 식사를 한 번 모시고, 값싸게 송 대표의 정치적 경륜과 경험을 배울 기회를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송 대표는 웃으며 "정치권에서는 현역이 밥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역시 웃으며 "이렇게 제안하고 얻어먹는다. 그런 허심탄회한 자리를 많이 만들어가면서 진심을 교환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두 대표의 만남은 약 30여분간 이루어졌다.

/연합뉴스

윤석열·안철수 '마이웨이' 모드 꼬이는 야권 통합 로드맵

윤, 여야 협공 피해 독자행보 예고
안, 당명 변경 꺼내 시간끌기 전략

정권교체의 기치 아래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를 계기로 한 데 뭉칠 것 같았던 야권의 통합 추진 로드맵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민의힘 합류가 확실시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마이웨이', 즉 독자노선을 밟을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벌써 일각에선 검증의 칼날을 피하면서 신비주의와 컨벤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후보 등록 직전 단일화를 이루는 '선거용 통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선거용 통합은 2002년 대선 때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를 시작으로 지난 4·7 재보선까지 약자들의 필승카드로 위력을 떨쳐왔다.

윤 전 총장은 17일 대변인을 통해 "여야의 협공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며 "국민이 가리키는 대로 큰 정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협공'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배신' 공세와 함께 국민의힘 안팎에서 "간보기 정치"라며 입당 압박을 가하는 상황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처지를 여야로부터 협공을 받는 처지로 인식한 것은 결국 여야 어느 쪽과도 손을 잡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윤 전 총장은 "내 갈 길만 가고, 내 할 일만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이 같은 형국이 계속 이어지면 윤 전 총장은 여권은 물론 야권과도 손잡지 않고 제3지대 후보로의 출마를 모색할 수도 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합당 실무협상은) 빠를수록 좋다"며 표면적으로는 변함없는 합당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통합의 시계는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민의당 실무협상단 대표인 권은희 의원이 당명 변경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안 대표는 여기에 "입장을 바꾸면(바꿔놓고 보면)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해 쐐기를 박았다. 안 대표가 이날 회의에서 "당명 변경 논쟁은 사치"라며 "수시로 간판을 바꾸는 것은 구태"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진정성을 의심하는 분위기다.

윤 전 총장과 안 대표의 움직임에 이 대표는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제1야당이 중심이 돼 야권 통합이 추진될 수밖에 없는 만큼 통합의 주체 간 혼선 양상을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잠재적인 우리 당, 야권의 대선주자가 될 수 있는 분들과 이견이 자주 노출되는 건 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청와대·여당은 꼰대·수구·기득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연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7일 청와대와 여당을 '꼰수기'(꼰대·수구·기득권)로 칭하며 "국민의힘은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의 지지를 더하는 덧셈의 정치, '가세지계'(加勢之計)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꼰수기'에게 어떻게 미래를 맡기고 '꼰수기'가 어떻게 민생과 공정을 챙기겠는가"라며 "이것이 " 청와대와 집권여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일자리, 부동산 정책 등 정부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를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보다 우월한 지표가 몇 개가 되나"라며 "문재인 정부의 연간 일자리 증가 수는 박근혜 정부의 22% 수준이고, 비정규직 증가 규모는 이명박 정부의 4.2배이며, 역대 집값 상승액 1위가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부동산 직거래 [토지·건물·임야 매매·임대]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9,190㎡, 느티나무15년생 105주외 7종(소나무, 백일홍, 목련, 벗나무, 함박꽃나무, 산수유, 은행나무) 총 1,810주 광주간 25분, 신설국도4차선 근접, 전원주택, 펜션, 물치장, 다목적 사용가, 조경수 포함 ㎡ 8만원

2 상가건물

1)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통로 사거리코너 점포8간, 대238㎡ 연257.8㎡ 주변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중 문화전당 연계 집중개발 투자 최상 매9억9천만원 보1천6백 월2백만원 상업지역
2) **광주. 북. 오치동.** 4층 대384㎡ 연998㎡ 사거리코너 요지 1층 점포6간 매16억 5천만원 보2억 월6백6십만원

3 전원주택, 가든, 펜션 용지

1)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70m접 계획관리지역 전·답 4,363㎡ 덕진산자락 남향 경관수려 ㎡14만원
2) **화순 북면 옥리.** 금포온천 정문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531㎡ 매㎡18만원

4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용지(주거2종) 분할 가

1)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방제림.**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15분 공용주차장, 도로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시장 근접, 교통요지 답4,220㎡(1,276평) 매㎡ 7십만 ※ 분할매매가

5 임야(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등 포함 7만6천㎡ 광주간45분 4차선국도근접 완도간 고속도로 2023년 완공시 영암 I.C 300m 지점 이용, 광주간25분 소요, 마을변방 편백 휴양림 1만주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대형차 출입가 귀촌자 최상 ㎡당 6천원 급매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20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5,810㎡(전포함) 지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방제림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적합 매㎡4만원 급매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한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적지 현지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2만원 급매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송 다수 자생 생약재배, 캠프장, 농가주택가 ㎡5천원 급매

6 건축물 임대(상가, 투룸)

1) **사무실용 기타(현 마트)** 광주. 서. 농성동 돌고개역 근접, 4차선 대로변 7층건물 중 1층 135㎡ 내부깨끗 대형주차장(부설·창고·화장실) 보증금2천만원 월110만원
2) **광주. 동. 대인시장 내 점포** 야시장 주통로, 사거리코너 11㎡(약3평) 전시장, 먹거리, 건어물 기타 다목적 사용가, 보3백 월30만원
3) **투룸임대** 광주. 서. 농성동 돌고개역 양동시장 근접 3층 52㎡ 풀옵션 정남향 엘리베이터 도시가스 대형주차장 보2백만원 월30만원 즉시 입주가

※ 부동산 직거래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 188-8 H. 010-3612-9262

상가 매매(상무지구)

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 8천(융 4억가)
2) 보증금 4천만, 월 300만(임대완료)
3) 평수 140평(전용 100평)

☑ 중심상업지역 메가박스 영화관 앞
☑ 사무실, 바, 유흥룸, 모든 업종 가능

(즉시 업무가능, 시비없음)

010-6670-9800

장성토지(분양 매매)

광주에서 20분(도로접)
장성댐(호) 2분,
장성 IC. 5분

1) 100평 → 8천
2) 150평 → 1억1천
총 1,778평 → 9억
(융 4억가능)

10필지 전원주택
선착순 접수중

062-382-5500